

IMF 그늘에 새싹포교 '겨울잠'

결산 99 어린이·청소년 포교

99년 한해 어린이·청소년 포교 분야는 부분적으로는 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으나, 전체적으로는 정체기였다.

IMF이후 어려워진 절실함은 생활의 어린이법회까지 미쳤고, 재정적 뒷받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린이포교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등 그 여파가 올해 초 반까지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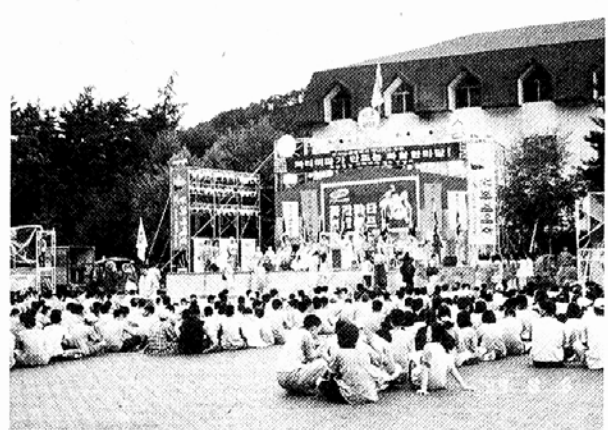
그나마 전국적 조직체인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가 여름과 겨울 지도자연수를 실시하며 어린이포교에 대한 방안 제시와 의견 수렴 등 어린이포교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펼쳐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 불광사가 주최하는 '부처님그리기 대회', 선재연구모임의 '전래놀이 한마당' 등이 새로운 시도와 기획으로 어린이포교의 명맥을 이으며, 교계를 대표하는 어린이포교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이 6월 실시한 서울 경기지역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도교사의 상당수가 어린이지도를 위한 체

대불어 연수·전래놀이등 명맥유지 청소년 소책자 포교 활성화 '눈길' 파라미타·청교련 다양한 활동 절실

계적인 교육과 불교신행경력을 제대로 쌓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종단차원의 어린이 청소년 지도교사 교육기관의 설립, 전문자격증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이 제기됐으나 구체적인 성과물을 거둬들이지 못했다.

청소년포교의 경우 소책자포교가 꾸준히 전개됐다. 선재연구모임의 청소년상담지(선재들의 속삭임), 부처님을 담으려는 사람들의(무지개걸리나무), 파라미타청소년협회의(파라미타), 전국교사불자연합회의(좋은친구) 등이 발간돼 청소년들의 고민과 부처님 가르침



등을 재미있는 그림과 이야기로 담아냈다. 그러나 제작을 위한 재정 마련이 여전히 힘들어(선재들의 속삭임) 경우 올해 초 폐간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소책자포교와 더불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포교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불교방송과 불교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통한 포교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불교방송의 어린이프로그램, 최근 개설한 종경소리 홈페이지, 대불어가 준비 중인 인터넷 웹진등을 제외하고는 타종교에 비해 매체포교가 여전히 미약한 상태다.

반면 파라미타청소년협회와 청소년교화연합회의 지부 지회 활동은 예년에 비해 활발하게 전개됐다. 그러나 대부분 활동이 청소년자원 봉사나 문화재보호 등에만 치우쳐 있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7월 조계종 포교원이 실시한 '청소년 종교의식조사'에서 청소년불자의 70.9%가 종교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청소년불자 포

명사들의 건강비결 23



"건강을 말하기 전에 무엇보다 부모로부터 완벽한 신체를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10년째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을 맡아오면서 1천여명의 포교사를 배출하고, 불자들의 주변확대에 여념이 없는 이하우(75)학장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에서 건강은 시작된다고 전한다.

욕심 없이 사는 것, 긍정적인 사고로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등 마음의 작용을 건강의 출발점으로 꼽는 이하우 장은 한가지 놓치 못한 욕심이 있다.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불법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그것이다. 그 욕심으로 고회를 훌쩍 넘긴 나이에도 부산 불교교육대학에서 '부처님의 생애', '한국불교문화사' 등의 강의를 맡아 열강하고 있으며, 각종 신행단체 법회나 강연에서 청년처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학장

이 하 우 <부산불교대학장>

감사하는 마음이 건강 첫걸음 새벽예불 좌선후 가벼운 산책

은 울해 사단법인 불꽃포가 불교 발전에 탁월하게 기여한 불자를 선정, 수여하는 99 자랑스런 불자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그러나 이학장은 "부처님이 좋아 부처님을 따라 나섰을 뿐인데 상까지 받으니 부끄러울 뿐"이라며 "부처님그늘에서 살았으니 불제자 길러 은혜 갚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이학장의 하루는 새벽 5시쯤 어김없이 시작된다. 예불과 좌선, 뒷산 산책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는 것은 신체와 정신을 고루 살피는 건강법이다. 또한 채식 자체를 수행으로 여기며 채식을 위주로 하지 주어진 음식에 대해서는 가리지 않고 투정하지 않고 기쁘고 즐겁게 먹는다. 무엇보다도 욕심과 기쁨을 비우도록 노력하면 잠을 충분히 깊게 자 피곤을 잊어 버린다.

30년 세월동안 불법 전하기에 매진하면서도 단 한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었던 이미 죽은 뒤의 화장 유언까지 해 두었다. 지수화중 사대로 출세할 욕심에 대한 착을 버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오롯한 발원하나라 이학장은 오늘도 욕심없이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nia.com)

좋은벗 풍경소리 홈페이지 떴다

www.bdsori.co.kr

찬불동요 제9집 발표

좋은벗 풍경소리(대표 이종만)가 찬불동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이 홈페이지에는 풍경소리가 그동안 발표한 찬불동요 창작곡 1집~8집이 소개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집과 8집의 수록곡은 리얼오디오로 직접 감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 나도 작곡자라는 코너를 통해 찬불동요 가사와 곡을 모집하고 있으며, 찬불동요창작에 참여할 후원 회원도 모집한다. 풍경소리의 인터넷주소는 www.bdsori.co.kr이다.

홈페이지 개설과 더불어 풍경소리는 찬불동요 창작곡 제9집을 새로 발표했다.

이번 제9집에는 '우리들 소리', '절마당과 빛자루', '부처님 등산', '큰스님얼굴' 등 경쾌한 리듬



에 동음을 담아낸 16곡이 수록되어 있다.

이번 찬불동요 9집은 풍경소리의 재정난으로 제작보급이 한때 중단되던 지경까지 이르렀으나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의 성금과 천태종교부부 연합회의 연구보조금으로 발간됐다. 풍경소리 대표 이종만씨는 "반주와 편곡 등 아직 미진한 부분도 많지만 어린이포교를 위한 일념으로 더욱 발전적인 찬불동요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한마음선원 인터넷 방송국 개국

자비·평화 메시지 담긴 특집다큐 방영

www.hanmaum.org

11월30일 교계 첫 인터넷 TV 방송을 시작한 한마음불교방송(www.hanmaum.org)이 역동적인 프로그램 방영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

비디오 오디오를 구가해 인터넷 TV의 인기도 선보이고 있는 한마음불교방송이 개국 특집으로 내보내고 있는 다큐멘터리 '열반의 미소를 찾아 천년의 길을 가다'는 새 천년을 여는 시점에서 불상을 통해 동서양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자비와 평화의 메시지를 제시해 네티즌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아지고 있다.

'열반의 미소...'는 세계문화유산이자 한국불상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석굴암 본존불의 신비로운 미소, 서산 마애 삼존불, 미소의 원류를 찾아 중국 서역 인도 그리스까지 2만 km의 긴 여정을 31분 프로그램으로 담고 있다.

석굴암 본존불 서산 마애불 등 한국전(3분)을 시작으로 운강석굴 용문석굴 등 3대석굴을 보여주는 중국전(5분), 천산 산맥 너머의 척박한 사막지역,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발달한 동향 등 서



역전(5분), 인더스 그리스 문화의 흔적이 있는 간다라 지역을 담은 인도전(8분), 고도 아테네 그리스 공예품을 통해 불교흔적을 찾는 그리스전(8분)으로 제작됐다.

이 특집 프로그램은 프론트라인 디지털에서 제작(감독 정수웅)한 것을 한마음방송에서 온라인상으로 독점 방송하고 있다.

위영란 기자

"어린이 포교프로 다양화해야"

대불어 지도자 연수

조계종포교원과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가 공동주최한 제28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가 11월 27일~28일까지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렸다.

전국 300여 어린이지도교사와 스승이 참석한 이번 연수회에는 '사할 속 더불어 살기 위한 어린이법회 운영', '우리가 부르는 찬불가', '경전상에 나타난 어린이포교' '사할예절과 예법', '21세기 사회문화에 대응하는 청소년 교육과 불교' 등 새천년을 대비하는 다채로운 강의로 진행됐다.

이번 연수회에서 현진스님(조계종포교원 포교부장)은 "새시대에 부응하는 어린이포교를 위해 법회 실행프로그램의 강화와 다양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님은 "종단차원에서도 어린이지도교사 양성기관 설립과 전문지도교사에 대한 지원과 재교육

등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교련 제주지부 유해환경 추방운동

대한불교청년교화연합회 제주지부(지부장 조명철)는 4일 한라체육관에서 제2회 청소년 우리문화 자강운동을 펼쳤다.

올바른 청소년 문화정착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김덕수 사물놀이패를 초청, 우리 전통문화예술의 우수성을 감상하는 한편 청소년 유해환경 추방캠페인도 전개했다.

가출청소년 대책토론

청교련 인천지부

대한불교청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지부장 선일스님)는 10일 대한민국 환경기념관 2층 강당에서 '가출청소년 현황 및 대책'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전국 시실현황과 프로그

램' '청소년의 가출원인과 재가출 방지를 위한 지도방안' '가출청소년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한학교 운영방안' '가출 청소년 캠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모색' 등이 발표됐다.

또 청교련 인천지부에서 제작한 '가출 청소년의 목소리' 영상물을 통해 가출 청소년들의 실태와 원인, 대안을 모색했다.

2600년전 붓다가 깨달은 무아 연기 중도는 무엇인가?

완전한 깨달음

해공 지음 / 7,000원

동서양 종교, 철학을 넘나들며 수행인의 길을 걸어온 해공! 그가 만난 위대한 스승들 <마하리쉬> <마하라지>.

미얀마에서 붓다의 실질적 수행법인 위빠사나를 통해 개체적 에고를 초월한 철학적 무아의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걸었던 생생한 체험

국민은행 270-01-0052-893 우체국 102723-0029385 예금주 : 도서출판 보리수 온라인 입금하신 후 전화주시면 책을 우송하여 드립니다.(우송료는 본사 부담)

전국 서점 및 불교서점에 있습니다. **보리수** TEL (0342)701-0084

삼·부·농·산·은·유·기·재·배·약·초·만·을·생·산·하·고·있·습·니·다

자연은 거짓이 없습니다!

무병장수를 바라는 마음 황토삼백초에 의지하십시오...

신묘장구대다라니 150만 독을 지송하고 찾아낸 약초 **황토삼백초**...

7년을 정성들여 생산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대신주 위신력은 미룬 나무 가지에 짙어서 열매가 열리게하기를 막으며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일체 관고는 이다라니로 고지저 못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라니와 더불어 유기제배한 약초로 효과가 뛰어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분들한테 좋습니다.

- 항상 머리가 개운치 않고 의욕이 없으신 분
-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
- 간이나 당뇨 혹은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
- 속이 편치 않으신 분
- 통변이 시원치 못하신 분
- 피부미용과 여성질환으로 고민하시는 분
- 식수공해가 걱정되시는 분
- 팔다리가 아프신 분

대梧居士(김봉서 원장)

차나 술농처럼 드시고 자주 많이 드셔도 좋습니다. **황토삼백초**는 믿을 수 있습니다. 손님 접대나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97.11.6 / 99.9.2 'MBC-TV 고향은 지금'
99.9.24 'KBS-TV 6시 내고향'
99.7.10 'SBS-TV '모닝와이드' 방영

삼부농산
SAM BU Farm

경남 거창군 양양면 신촌리 63
0598-945-0075~7
http://www.teafarm.com